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8호 【루계 제26162호】 주체107(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각하께

나는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각하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지난 70년간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되여왔으며 우리 두 나라는 아시아지역에서 오랜 기간 친선의 뉴대를 이어온 친근한 나라로 되였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력사적인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많은 훌륭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께서 몽골을 공식방문하신것은 몽골과 조선 두 나라관계에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는것을 언급하면서 이 기회에 당신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실것을 희망합니다.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대지도자들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준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되게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륭성발전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할트마긴 바뜨톨가

2018년 10월 10일 울란바따르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우리는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마라까이시에서 진행된 자주성과 세계평화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토론회 참가자들과 각계 인사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내정간섭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표합니다.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정치, 경제적제재에 맞서나가는 베네수엘라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고귀한 귀감으로 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당신께서 기울이시는 정력적인 노력에 고무된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당신께 정중히 전하는바입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나가고있으며 조선인민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은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을 따라배우는 길만이 매개 나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으로서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광범히 보급하여 새 사회건설을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자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계속 현명하게 이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김정은동지 만세!

자주성과 세계평화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토론회 참가자일동

2018년 10월 6일 마라까이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혁명적당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주체의 기치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세상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위력한 당으로 위용떨치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찬탄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그들이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1945년 10월 10일은 조선인민의 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당이 탄생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데서 령도적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로씨야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뭉친 조선인민은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였으며 조국을 보위하는 영웅적인 길을 걸어왔다.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 국제사업담당 부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건설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성과 세계평화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토론회 진행

자주성과 세계평화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토론회가 5일과 6일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마라까이시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장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부위원장 오마르 로페스와 베히꼬, 브라질, 칠레, 페루, 에꽈도르, 볼롬비아, 꼬스따 리까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 베네수엘라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최근년간 라틴아메리카지역 나라들에서 진보적력량의 장성과 그 활동에서 달성된 성과들, 지역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투쟁을 저지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책동에 맞서 서로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진보와 변혁을 이룩하는데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광범히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또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시였으며 자주화된 새 사회건설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적규모의 청년주체사상연구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자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속에 이룩된 성과
서두수발전소에서 증산돌격운동개시후 현재까지 계획보다 수천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북방의 대규모전력생산기지 서두수발전소에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매달 전력생산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10월에 들어와서도 매일 계획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특히 증산돌격운동이 개시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계획보다 수천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이 혁혁한 성과는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화답할 일념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발전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발전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증산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따라세우면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참모부에서는 물조절을 과학적으로 하고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봉양수장 양수기들의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활력을 부어줄 열의안고 떨쳐나련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서두수2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력증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생산장성의 열쇠가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무하분때도 합리적으로 하여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전력증산의 봉화는 서두수3호발전소에서도 세차게 올려퍼지고있다. 최근 효률이 높은 3대의 발전기수차들을 도입한 발전소에서는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자식려자기, 수자식조속기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하여 보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서두수1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는 자각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물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설비운영과정에 얻은 경험이 호상교환되고 앞선 설비조작방법이 적극 탐구도입되는 속에 련일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신양양수직장과 무봉양수장, 대홍단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실함이 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하기 위해 양수기들을 만가동시키고있으며 양수기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도중취수구, 수력구조물관리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갈은 물량으로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전기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두수1, 2, 3호발전소들에서 요구되는 발전기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과 함께 예비부속품들을 확보하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높은 전력증산성과로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선구자가 될 일념안고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대상설비생산성과 계속 확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일흔돐까지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10월에도 대상설비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등 10여개 단위들에 보내줄 대상설비들을 제기일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교차생산조직과 로력보장사업을 앞세워 매일 맡은 대상설비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장으로 옮긴 일군들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기술자, 로동자들을 대고조진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신포항주철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대상설비생산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직장일군들은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로동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주물품소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단조직장, 유압기구직장, 청년직장, 정밀가공직장, 대형조기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려 매일 맡은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자재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자재들을 제기일에 보장하여 대상설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쥘 때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새형의 기계설비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상설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 넘쳐 수행
평양시건재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년초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평양시건재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관리국적인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이 112%로 완수되였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자각한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이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즉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웠다.

온천화강석광산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연마석을 개발하고 중절기, 소절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간화강석, 다듬돌 등 지표별에 따르는 년간 돌제품생산계획을 120%로 초과수행하였다.

평양주철관공장의 로동계급은 저주파유도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용해방법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교대당 1t이상의 주물제품을 더 생산함으로써 망흘, 우수개를 비롯한 지표들의 년간계획을 마무리하였다.

평양화학건재공장의 로동계급은 건식외장재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였으며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세멘트기와생산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평양전기건재공장, 평양금속건재공장에서는 생산공정별전문화수준을 높여 계획된 각종 전기건재류와 금속건구류생산을 앞당겨 결속하였다.

미림감문발전소의 로동계급도 년간계획을 한수한 기세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힘있게 벌리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에서—
결속할 열의안고 기관차수리전투를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
92% 계선돌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고있다.

지난 12개월동안 3 200여m의 련결제방과 6 000여m의 1호방조제를 쌓고 마감막이구간의 바닥보강공사까지 다그치며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과제를 92%로 해제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선구자단위로 내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안겨주신 크나큰 영광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전투의 나날을 충정과 헌신의 낮과 밤으로, 새 기록창조의 분분초초로 이어가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무른 감탕층에 의한 암출현상으로 하루에 4~5차, 최고 8차례나 10여m구간의 방조제가 붕청붕청 내려앉군 하는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공사를 제기일에 끝내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종합기업소 당일군들의 침입식정치사업과 이신작칙, 힘있는 후방사업은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건설의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공사전반을 박력있게 내미는 야전형지휘관들의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능숙한 지휘는 홍건도전역에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은 무른 지반층에 가장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찾아내여 완강히 실현해나가고있다.

접도지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접도를 타고앉은 장송, 다사,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선박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은 채석조건이 전례없이 불리한 속에서도 합리적인 굴진방법과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굴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하루에도 5~6m, 최고 10m의 굴진실적을 내면서 막돌과 흙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안산지구의 대삼곶도에서도 타오르고있다.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은 제방끝부분에서 차받이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제방성토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석화, 곽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분공장의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압축기정상가동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막돌과 비력을 중단없이 보장하고있다. 그리고 제방도로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화물자동차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함으로써 제방전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분사업소별, 직장별, 기대별, 공정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다사,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운전사들은 분초를 쪼개가며 한m³ 더 싣기, 한량 더 뛰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의 만년대계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간석지건설에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고있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천수백정보의 새땅이 얻어질 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천만의 심장에 지펴주신 애국의 거세찬 불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으로 조국강산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의 천만로고가 사무치게 안겨올수록 삼복철강행군의 자욱자욱이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진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

절세위인의 거룩한 행보와 더불어 우리의 눈앞에 숭엄히 안겨오는 불멸의 화폭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지난 7월 삼복의 폭양길을 달리시여 강원땅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강원도양묘장부터 찾아주시였다.

양묘장의 어머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가 또 하나 멋들어지게 일떠선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며 강원도에서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더없이 숭고한 애국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안으며 강원도인민들만이 아닌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이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한것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절세위인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세계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몸소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시여 우리 인민을 혁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몇해전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때 자라나게 됩니다.

애국, 더없이 성스러운 그 부름속에 실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근 10년전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부터 먼저 찾으신 그이께서는 강사로부터 사적교양실에 모신 영상사진문헌들과 사적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감격에 젖어있는 강사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상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공장에 꾸려져있는 양묘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이였다.

불철주야로 끊임없는 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종업원들이 꾸려놓은 자그마한 양묘장을 보아주시며 높이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못 잊을 그날의 사연을 전해주는 영상사진문헌에는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가꾸어가시려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이 부대주변의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것을 보시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시고 살구나무,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중대병영을 보시면 살구나무동네, 감나무중대라고 정답게 불러주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는듯 강사의 해설을 들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도 감격이 북받쳐올라 그만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깨를 들먹이는 공장일군들과 동행한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애국중의 애국이 무엇인가를 새겨주는 또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실이 있다.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도들에도 중앙양묘장과 같은 양묘장을 건설해주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시는 전기간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군중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며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등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조성과 관련하여 대중운동을 조직하여야 할것 같다고 하시며 자신의 생각에는 사회주의애국림운동이나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같은 대중운동을 벌리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애국림운동,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

여기에는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산림조성사업에 최대의 힘을 넣어 조국강산을 만복의 터전으로, 청춘락원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의지, 당이 번개를 치면 산악같이 떨쳐나 우뢰로 화답하는 우리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맥박치고있었다.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치는 사회주의애국림운동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은 이렇게 타올랐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력한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주체104(2015)년 2월 26일에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며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가꾸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을 정녕 그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찾으시는 곳,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나무심기정형을 알아보시며 양묘장을 잘 꾸리고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림에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천만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며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푸른 숲이 우거져 설레이는 금수강산, 사회주의락원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혁명일화

인 재 농 사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은 《인재농사》라는 하나의 시대어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지난 7월 9일이였다.

이날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읍에 교육기관이 몇개나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동행한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에게 도들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도들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많은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도, 시, 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자농사만 과학화, 집약화할것이 아니라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인재농사!

참으로 심오한 뜻이 담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후대교육사업을 인재농사라는 단 한마디 표현으로 통속화하시고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신 그이의 말씀에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자면 온 나라에 인재농사열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고귀한 철리가 담겨져있기때문이였다.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후대교육사업을 천하지대본이라 일러오는 농사에 비유하여 통속적으로 말씀하신것은 비단 이때뿐이 아니였다.

일군들의 뇌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재농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뜻깊은 그날이 떠올랐다.

주체104(2015)년 11월 13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로 전변된 공장을 돌아보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 생산지령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통합생산체계가 높은 수준에 이른것을 대번에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지배인에게 통합생산체계를 어느 단위에서 맡아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조종탁에 앉아있던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강좌장을 가리키며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이 선생이 책임지고 통합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고 말씀을 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강좌장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약국의 감초처럼 어디에 가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많은 일을 하고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조종탁에 앉아 통합생산체계를 관리하고있는 공장의 기술성원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이라는것을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화, 정보화사업을 밀어줄뿐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주인이 될 전도양양한 청년지식인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앞으로 나라의 공업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인재농사를 잘하여야 합니다.》

순간 모두의 가슴은 무한한 격동으로 설레였다.

몸내, 여름내 씨앗을 묻고 땀흘려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듯이 인재도 품을 들여 하나하나 알차게 키워내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이 그야말로 금옥같은 명언으로 안겨왔던것이다.

그날의 뜻깊은 가르치심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되는 올해에 또다시 인재농사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게 된 일군들의 눈금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후대교육사업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인재가 바다를 이룬 나라로 만드실 의지로 그 얼마나 심장을 불태우셨으면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그렇듯 간곡하게 당부하시랴.

농사는 한해를 내다보며 짓고 나무는 10년을 계획하고 심으며 인재는 100년을 내다보고 키운다는 말이 있다.

혁명의 당면리익만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시며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후대교육사업을 그 무엇보다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이 일군들의 심장을 다시금 뜨겁게 울려주는 참으로 뜻깊은 순간이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비단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인재농사열풍을 일으킬 때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속깊이 새겨안았다.

그렇다. 인재농사열풍이자 우리 조국이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오르게 하는 비약의 열풍이며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사회주의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지름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격정속에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할수 있는 후대교육사업에 더욱 전심전력해갈 뜨거운 맹세로 가슴을 불태웠다.

본사기자 공 로 혁

전화의 나날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간다. —북구당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

제령군 래림리당조직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자각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의 일군은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로농통신원 조 경 옥

일군의 기질—연구심

옳은 방법론을 낳게 하고 믿음성있는 결과에로 이어지게 하는 연구심.

과업을 놓고 깊이 연구하는것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첫 공정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심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품성이다. 한것은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기풍이 없으면 실천활동에서 전진이 있을수 없는것은 물론 더 높이 비약할수 없기때문이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전에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집행하겠는가 하는것부터 열정적으로 연구하는것을 기질로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사업에 대하여 머리를 쓰고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에서의 선행공정인 연구심은 정확성, 철저성을 전제로 한다.

사업에 대한 연구심문제는 지식수준이나 사업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립장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이다.

사색의 폐만을 배격하고 더 높은 곳을 지향하게 하는 연구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늘 일에 파묻혀 순간도 사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사활적이다.

혁명임무수행에 전심전력하는 일군만이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어 기발한 착상도 할수 있으며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박력있게 내미는 혁명적기질도 갖출수 있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늘 깊이 연구하는 과정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 궁리를 키우는 과정이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실천행정이다.

사람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쓰지 않으면 무디여지는 법이다. 일군들이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일하라는것은 결국 사업을 연구하고 머리를 쓰라는것이다. 머리를 쓰지 않고 편안하게 일하려고 하여서는 언제 가도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접수하면 당의 의도와 자체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는 묘술을 찾아내야 한다. 방법론이 없이 일하는 일군들은 일을 잘할수 없다. 그런 일군은 있으나마나 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집체적으로 모여앉아 깊이 연구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운 다음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전개해나가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제기된 일을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집행할 묘안이 나올 때까지 진지하게 연구한데 기초하여 시작한 일은 얼음에 박밀듯 거침없이 나가기마 현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인 실력은 연구심을 낳게 하는 저장고이다. 풍부한 지식, 생활에 대한 깊은 리해에 기초하여야 당의 방침을 접수하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작전을 정확하게 세우고 포치와 장악, 지도, 총화와 재포치의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하여 완벽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무슨 일이건 깊이 연구하여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책임적으로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제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포로되거나 말려들게 된다.

형식주의는 사업을 빼심을 들여 연구하지 않고 겉치레만 하여 일을 헐하게 되는대로 해먹으려는 낡은 사업태도이다. 형식주의에 포로되면 주먹치기로 일하게 되고 결국 쓸데없이 헛걸음만 하게 된다. 일군들이 이런 식으로 일해가지고서는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이런 현상을 경계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형식주의, 요령주의적으로 일해가지고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대로 관철할수 없다고, 우리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이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연구심이 없이 덮어놓고 내리먹이는것은 관료주의이다. 연구심이 없이 일하면 결국 관료주의자가 되고 관료주의자는 대중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라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다.

일군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일군들이 늘 머리를 쓰고 뛰여야 당사업도 잘되고 경제사업도 잘된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간곡한 당부를 뼈에 새기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량 순

사회주의위업수행은 치렬한 계급투쟁과정

지금 온 나라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련속적인 공격과 최대한의 증산으로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이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과정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입니다.》

계급투쟁은 인류사회가 적대되는 계급들로 갈라지고 그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면서부터 시작되였으며 수천년간 지속되여왔다. 누가 누구를 하는 이 치렬한 계급투쟁은 결코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 자본주의를 혁명적폭력으로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세상을 세우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함께 끝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 불순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과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은 계속된다.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란 없다.

계급의식은 사회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룬다. 력사와 현실은 사회주의사상,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만이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본태를 견결히 고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하는 인민들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뿌리박아야 하는것이 바로 반제계급의식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년학생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적대세력들과 견결히 싸우며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는 전위투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자면 사회주의위업수행이 첨예한 계급투쟁과정이라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위업이 전진발전할수록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낡은 착취사회를 부정하고 태여난 사회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것으로 되고있다. 낡은것인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새것인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이 가속화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과시될수록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멸망은 앞당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매장해버리는 사회주의의 힘이 강해질수록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발악은 더욱 거세여진다. 자기의 리윤추구를 위해서는 서로 물고뜯으면서도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를 암살하는데서는 공모결탁하여 날뛰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나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림으로써 반사회주의전략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나라 인민들을 군사적인 위협공갈과 야만적인 제재봉쇄로 굴복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심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초강도압박을 가하는것과 함께 다른편으로는 그 무슨 《정화》와 《협력》을 요란스럽게 광고하기도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타령과 유화정책은 사실상 사회주의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정책이 파산된데로부터 궁여지책으로 꺼내든것으로서 힘으로 이루지 못한 암살야망을 경제문화적공간을 통해 실현해보려는 교활한 계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때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티끌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할수 없게 된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의 고귀한 피와 땀이 깃든 사회주의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내리우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유화책동에 말려들어 계급적원쑤들과 전결하게 투쟁하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력사는 혁명하는 인민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계급적원칙성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제재봉쇄로 우리를 질식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정치적대결전이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가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앞에 주저앉아 조건타발만 한다면 좋아할것은 적들밖에 없다.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를 압도하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고 자기가 지켜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우리 인민에게 더욱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버스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이들처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더욱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나갈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되고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으로 빛날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이 계속되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위업이 온갖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요소들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투쟁속에서 전진완성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저절로 온 사회에 사회주의의 넋과 숨결이 흐르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 낡은 사상잔재와 요소들이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계속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요소들과의 심각한 투쟁이 진행되게 된다.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은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의 한 형식이다.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요소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책동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된 시기에 머리를 쳐들게 된다. 경제생활이 어려울 때 생긴 사상의식의 변화라고 하여 경제형편이 좋아지면 저절로 개변되리라고 보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회주의사상과 생활양식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과 부르죠아생활양식은 암과 같다. 사람이 암에 대하여 등한시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것처럼 혁명적당이 사상사업을 홀시하고 경제만능주의에 빠지면 사회에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만연되게 되고 결국은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 없게 된다.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요소들을 묵과하는것은 혁명의 원쑤들에게 사회주의제도를 심겨바치는 첫걸음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사회주의본태와 어긋나는 부정적현상들이 나타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의 침투와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계급적으로 변질되여 혁명대오에서 제거되였거나 조국을 반역한자들은 례외없이 적들의 사상문화에 중독되여 정신육체적으로 타락한자들이다. 그러므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법기관들은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인민들을 원쑤들의 검은 마수에서 구원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중대과업으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사회주의사상문화와 배치되는 요소들이 발붙이고 싹틀수 있는 온상을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사회주의진지, 계급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길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혁명진지는 굳건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며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에서의 탈선과 양보는 곧 죽음이라는것을 철리로 간직한 인민이다. 전체 인민이 외세에 대한 사소한 환상이나 의존심을 철저히 배격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높은 계급적자존심의 뚜렷한 표현이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나가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면역이 강해지면 병균이 침습하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것처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의 계급적본분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것이다.

력사와 현실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이야말로 첨예한 계급투쟁과정이며 그 승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인민의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반제계급투쟁의 1선참호로 여기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증산의 동음, 대비약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감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할것이다.

유 철

바다의 용감한 정복자들답게 완공의 날을 향해 폭풍쳐 내달린다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1.5배의 공사실적 기록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20여일동안에 4구역 수천m의 중간방조제를 건설한 기세로 종전보다 공사속도를 1.5배로 높여 기본방조제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4구역건설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총공사량의 40%를 해제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는 룡매도간석지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불타는 열의안고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맨처음에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4구역건설은 91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38만여㎥의 막돌로 총연장길이가 수십리나 되는 중간방조제와 기본방조제를 쌓아 2 000여정보의 새 땅을 얻어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4구역 기본방조제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의 뜻과 리상을 창조의 기준, 표대로 내세우고 간석지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이런 결사의 각오안고 분발해나선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공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지휘부를 정하고 전투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채석장과 토취장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로력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전반적인 작업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새로운 공법과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기본방조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지휘부에서는 채석장으로부터 공사장까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조건에 맞게 두곳에서 동시에 기본방조제건설을 진행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시공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시공일군들은 기본방조제건설을 립체적으로 벌릴수 있도록 각 분사업소들의 작업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측량, 작업량, 자재소요량 등 기술준비작업을 선행시켜 공정별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작업조직을 짜고들고있다. 결과 그들은 반복시공을 없애고 작업속도를 종전보다 1.5배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지휘부에서는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간석지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할 결사의 각오안고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로 전투장들은 부글부글 끓고있다.

채석장을 타고앉은 양화, 청단, 옹진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주택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주택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암질조건에 따르는 앞선 착암방법과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속도를 최대한 높이고있다.

양화, 청단, 옹진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발파효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수차에 걸치는 3만산발파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돌과 버럭을 기본방조제건설장에 보내주고있다.

기계화분사업소의 일군들은 운반실적이자 공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운전사, 운전공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운반실적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운전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서 찾고 기술강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강습을 통해 차를 세우거나 출발시킬 때 운전조작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등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배워주고있다. 운전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게 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기본방조제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분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재생리용하여 물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바다의 용감한 정복자들답게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선 간석지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기본방조제건설완공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명일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기계화분사업소 운수직장 청년운수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생산과 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기계화분사업소 운수직장 청년운수작업반은 룡매도간석지방조제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 자신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방조제건설에서 날에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하루가 다르게 폭폭 뻗어나가는 방조제에는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운전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인 사실을 놓고보자.

청년운수작업반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적지 않은 운전사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였다. 때문에 이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한것은 바다를 가르며 뻗어나간 방조제우로 자동차를 몰아가자면 보통의 담과 운전기술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었기때문이였다. 또한 지난 시기 경험을 놓고보아도 운전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인것만큼 운반속도가 빨라지고 그것은 그대로 방조제건설실적으로 이어졌던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자면 시간과 품이 들었다. 한시간을 하루맞잠이로 여기고 밤낮으로 자동차의 동음을 멈추지 않는 운전사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것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중한것이 있었다. 그것은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경지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것은 간석지개간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하루빨리 관철하는것이였다.

간석지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가 못되는가는 우리 운전사들에게 달려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운전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하루빨리 높여 방조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이런 자각을 안고 오랜 운전사들은 새로 들어온 운전사들을 한명씩 맡아 주행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새로 들어온 운전사들은 오랜 운전사들에게서 운전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이렇게 되여 새로 들어온 운전사들은 빠른 시일에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게 되였으며 모든 운전사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져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자동차수리정비를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해나간것도 좋은 실례이다.

어느 한 자동차대수리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작업반 당초급일군은 제일 걸린 문제인 중요부속품가공을 맡아안고 그 해결을 위하여 수십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발이 닳도록 뛰였다. 그의 헌신에 감동된 작업반원들은 하루빨리 자동차를 살려 만가동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리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있던 예비부속품들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살려낸 자동차가 힘찬 동음을 울리며 채석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게 자리잡은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바로 집단의 단합된 힘이 제일이라는것이였다.

이 모든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성이 안아온 성과이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 누구나 자랑스럽게 말한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김성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는 날을 따라 변모되고있습니다.》

여기는 룡매도채석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4구역 기본방조제건설에 필요한 흙과 돌보장을 위한 전투가 한창이다.

◎현지보도◎

격전장의 발파소리

▷룡매도채석장에서◁

힘차게 나붓기는 붉은기, 쉬임없이 움직이는 굴착기들, 적재함에 흙과 돌을 가득 싣고 기운차게 달리는 화물자동차들…

채석장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용감한 바다정복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친다.

쿵— 쿠쿵—

한발파를 성과적으로 끝낸 채석장이 또다시 끓기 시작한다.

신호수의 호각소리에 맞추어 화물자동차들이 채석장에 들어선다. 그러자 굴착기들이 경쟁이라도 하는듯 긴 팔을 휘저으며 흙과 돌을 퍼담아 실어준다. 적재함이 넘쳐나게 흙과 돌이 가득 실리자 신호기발을 흔드는 처녀의 목소리가 채석장에 울린다.

《오늘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에 화답하듯 손을 흔들어보이던 기계화분사업소의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며 기본방조제공사장을 향하여 화물자동차를 몰아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석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진다.

현장속보판에 실린 글발이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오늘계획 150%로 넘쳐 수행!》

그것을 바라보는 운전사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가득 실린다. 이쯤한 성과에 만족할 이들이 아니다.

룡매도간석지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일념으로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전화의 용사들처럼 날과 달을 이어온 그들인것이다.

한쪽에서 흙과 돌수송으로 끓고있을 때 다른쪽에서는 착암기소리가 높이 울린다. 낮에 밤을 이어 착암기를 들려가는 주택건설분사업소 착암공들에도 간석지건설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일념이 차넘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방금전까지 세차게 끓던 채석장에 정적이 깃든다.

《발파준비!—》

채석장을 책임진 일군의 맹짠 구령소리가 울린다. 긴장한 공기가 흐르는 속에 발파공들이 익숙된 솜씨로 발파구멍에 폭약을 재우고 다짐작업을 진행한다. 이윽고 발파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들려온다.

이어 일군의 웨침이 채석장에 메아리친다.

《점화!》

흙먼지가 곳곳에서 치솟는다. 동시에 산이 통채로 움씰 들리운다.

쿵— 쿠쿵—

발파소리가 룡매도를 진감하는 속에 돌과 흙이 통채로 쏟아져내린다.

채석장이 또다시 들끓는다.

굴착기들과 화물자동차들의 발동소리, 집채같은 바위들에 구멍을 내는 착암기들의 동음…

쉬임없이 화물자동차들을 맞고보내는 굴착기운전공들의 얼굴에도, 운전대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의 얼굴에도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만만한 투지가 차넘친다.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답게 간석지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열의안고 떨쳐나선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4구역 기본방조제공사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애국으로 불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심장의 불길이 그대로 비꼈는가 서해전역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다.

본사기자

우승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주택건설분사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주택건설분사업소는 룡매도채석장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는 단위이다. 비결은 이곳 일군들이 시간을 쟁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사색하고 노력한데 있다.

3만산발파를 위한 도정굴진을 할 때였다. 분사업소에서는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면서 굴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었다.

어느날 교대별실적을 따져보던 일군은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착암공들이 발파를 하기 위해 뚫은 구멍개수에서 차이가 있었던것이다.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은 발파공, 착암공들은 발파구멍을 적게 뚫고도 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었다. 그만큼 이들은 같은 작업시간에 발파회수를 늘여 실적을 높였지만 기능이 낮은 발파공, 착암공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작업능률을 높이지 못하고있는 현상은 그냥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였다.

일군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굴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였다.

분사업소에서는 발파공, 착암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박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들끓는 현장에서 암질조건에 따르는 앞선 발파방법과 착암기의 구조, 동작원리를 구체적으로 배워주기 위한 기술학습이 진행되였고 기능이 높은 착암공들의 경험도 알려주었다.

착암기에서 자주 고장이 날수 있는 요소들을 기술적으로 깊이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작업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교대전 설비점검체계를 철저히 세운것도 경험적이다.

지난 시기 착암공들은 작업이 끝나면 설비를 다음작업조에 그대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니 다음작업조 성원들은 전교대성원들이 설비를 리용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었고 그만큼 설비를 점검하는데 시간이 걸려 귀중한 작업시간을 잃게 되였다.

분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조들에서 교대 30분전에 설비를 점검하여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화평가사업을 잘하였다. 이것은 착암공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또한 그날 자기가 리용한 설비상태를 잘 알기때문에 정비시간을 줄일수 있었다. 교대전 설비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운 결과 작업능률이 1.5배이상 올랐다.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 바친 일군들의 부단한 사색과 노력은 분사업소가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릴수 있게 한 근본비결이였다.

특파기자 박철

건설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책임부원 최광남동무는 높은 실력을 지닌 일군이다. 그는 채석장과 방조제공사장을 비롯한 건설장의 곳곳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여러차례 진행된 3만산발파들에도 발파효률을 높이기 위하여 애쓴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종합기업소 건설직장 직장장 정경철동무를 직장종업원들은 친부모처럼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그는 종업원들을 친자식과 같이 따뜻이 대해주면서 맡은 일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보아주는 그를 가리켜 누구나 진정을 담아 우리 직장장이라고 부르고있다.

기계화분사업소 운수직장 청년운수작업반 반장 박명건동무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작업반의 맏형으로 불리우고있다. 그는 작업반을 마음과 정이 통하는 집단으로 꾸려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그의 진정이 있어 작업반에서는 모든 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그는 방조제건설은 운전사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애로되는것이 많지만 물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주택건설분사업소 제1작업반 반장 안철수동무는 굴진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대오의 기수이다. 그는 앞선 굴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또한 착암공, 발파공들을 비롯한 기능공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굴진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최광남동무

정경철동무

박명건동무

안철수동무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또 하나의 훌륭한 과외교양기지

자연박물관에 동물생태홀과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이 새로 꾸려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종합적인 지식을 주는 자연박물관 같은 교육거점들을 잘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폭넓은 지식을 안겨주는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로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에 최근 동물생태홀과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이 새로 꾸려져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자연박물관 4층에 새로 꾸려진 동물생태홀에는 열대산림초원의 다양한 동식물상이 펼쳐져있는데 근 150종에 260여점에 달하는 박제품 및 동물모형들과 수많은 식물표본들이 박쥐동굴구역, 해양생태체험구역, 륙지생태구역에 전시되여있다.

열대산림초원은 열대산림대와 반사막대사이에 분포되여있는 열대성초원지대를 말하는데 일명 싸반나라고도 부른다.

참관자들은 동물생태홀의 여러 구역들에 있는 반경화와 박제품, 동물모형, 식물표본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랄리아의 일부 지역들에 위치한 열대산림초원의 동식물들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3층과 4층에 꾸려진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1, 2에서는 지구의 자연환경과 생물들의 특성을 잘 알수 있게 하는 직관물들과 함께 문답과 판찰,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에게 폭넓고 깊이있는 자연지식을 안겨주게 된다.

3층에 있는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1에는 수많은 생물표본들과 함께 현미경, 다매체편집물을 시청할수 있는 액정텔레비존 등이 갖추어져있는데 지능계발교실, 공작실의 기능도 수행할수 있는 여기에서는 학급단위로 참관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담임교원이나 자연박물관 연구사 또는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지도밑에 문답, 강의 등의 방법으로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등과 관련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2에서는 다양한 직관물들과 실물표본, 채집도구, 여러가지 유희기재 등을 리용하여 직관교육 및 실물교육을 진행한다.

우주모를 형상한 우주탐험구역에서는 무선조종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우주전쟁》과 같은 유희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흥미있는 상식을 주고있으며 동식물알아맞추기에서는 자연박물관의 1층부터 4층까지의 참관을 통해 배운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동식물들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수많은 동식물자료가 들어있는 카드를 리용한 지능유희를 진행한다.

동물과의 힘겨루기에서는 유희기재를 리용하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주먹으로 내리누르는 힘을 측정하고 이와 결부하여 각이한 동물들이 낼수 있는 힘에 대한 지식을 보급한다.

이밖에도 화석찾아보기에서는 각이한 지질시대에 살았던 동식물들의 화석들을 도구를 리용하여 직접 발굴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화석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며 나의 동물친구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합성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곳을 리용하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에게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 종업원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대중교양 및 과학연구보급기지인 자연박물관을 과학성,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더 잘 꾸리고 각종 표본들과 학술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휴식과 교양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룡
사진 본사기자 최충성

과학기술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간다

당의 자연보호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애국자집단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

나라의 동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연구에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지혜를 묵묵히 새겨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도 있다.

당의 자연보호정책을 받들어 근 30년간 우리 나라의 주요 자연보호구들과 생물다양성중점지역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벌려온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시기 구월산과 묘향산,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7월 금강산지구가 또 하나의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게 된데도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생물권보호구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데서 의의가 클뿐아니라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연구와 사회문화적교류도 할수 있게 준비된 지역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생태환경보호대상지, 관광지로 되고있으며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의 중심지로도 되고있다. 이번에 금강산지구까지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명산지구가 모두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게 되였으며 명산들에서의 생태환경보호와 과학연구사업, 사회문화적교류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 성과는 우리 당의 현명한 자연보호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과 열정, 창조적지혜를 다 바쳐온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의 열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분야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제일기수가 되고 생태학연구를 비롯한 자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십여년전부터 금강산지구에 대한 조사와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 나날 금강산지구의 동식물종들의 분포상태를 지역별, 지점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보호를 위한 과학적기초를 마련할수 있었다.

이것은 금강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의 큰 밑천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주요명산들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조국의 명산,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할 목표를 제기하고 4년전부터 그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벌려왔다.

세계에 아름답기로 이름높은 금강산은 지형과 기후 등 자연지리적조건의 다양성으로 하여 식물종들이 매우 풍부하고 동시에 특산종식물이 집중된 특이한 지역이며 희귀동물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생물다양성뿐아니라 사회경제, 문화실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이 결코 쉽지 않았다. 더우기 조사지역은 강원도의 고성군과 금강군, 통천군의 매우 넓은 면적을 포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등록한 생물권보호구들의 면적에 비해 몇배나 되였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름찬것이였다.

조사조건이 이처럼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고 필요한 연구력량도 설비도 자금도 부족한 조건에서 연구소당조직에서는 과학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선차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았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을 단순히 동식물자원이나 조사하는 과학연구사업이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보호하고 나라의 자연자원을 더욱 늘여나가며 세계앞에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해나가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만들기 위한 애국사업에 과학자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나가자. …

일군들뿐이 이런 투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는 정치사업은 과학자들의 가슴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연구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결심을 굳게 심어주었다.

소장 윤철남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은 과학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연구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충분한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것이 많은 속에서도 현지조사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의 모습에 감동되여 과학자들의 가족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합쳐나섰다. 이렇게 일군들과 가족들의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과학탐구의 길에 나선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명산 금강산을 온 세상에 더욱 빛내일 애국의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누가 보건말건 현지조사의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걸었다.

현지조사과정에는 얼음이 녹지 않은 땅에 천막을 전개하고 자체로 숙식을 보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한적도 있었고 차디찬 산중에서 산불위험을 막기 위해 우등불도 없이 가랑잎을 덮고 한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다. 집이 많은 철새들의 서식지와 생태일면을 사진에 담기 위하여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온종일 엎드려있은적은 그 몇번이였던가.

수십kg이나 되는 무거운 조사설비들과 기재들을 가지고 이들이 다닌 길은 평탄한 포장길이 아니라 험준한 산발과 진펄이였다. 바로 그런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도 수십리 지어 100리가 훨씬 넘게 행군하며 조사를 거듭하여야 하였다. 그렇게 행군하다가 어두워지면 인적없는 산속에서도 숙영을 하군 하였다. 너무 힘에 겹고 피곤하여 식사도 하지 못한채 잠든적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의지로 조사사업을 완강하게 벌려나갔다.

이들속에는 참기 어려운 아픔을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조사에 참가하고서야 쓰러진 과학자도 있으며 날새도 깃을 펴지 못하는 험한 산비탈을 톺아오르다 심한 부상을 당하고서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현지조사를 더 걱정하며 조사성원들의 등을 떠민 과학자도 있다.

참으로 누구나 쉽게 걸을수 없는 과학탐구의 길을 이곳 과학자들은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꿋꿋이 헤쳐왔다.

그것은 자연보호사업을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고 이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라의 동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숭고한 뜻이 이들의 심장마다에 억척의 신념으로 깊이 간직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이곳 연구사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자기 일처럼 도와나선 사람들도 많았다.

《이 새를 본적이 있습니까?》라고 쓴 질문서로 인연을 맺은 연구사들의 부탁을 잊지 않고 두루미의 사진을 찍어보내준 통천군의 어느 한 리당위원장, 젖은 몸을 말리려고 찾아온 과학자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밥식도 마련해주면서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인 사람들…

이렇듯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가 있었기에 애국의 심장과 심장이 합쳐진 그 뜨거운 열기로 추위도 이겨내고 막아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도 극복하면서 금강산지구의 넓은 면적에 대한 수년간에 걸치는 현지조사와 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하여 생물권보호구의 령역과 생물권보호구로서의 기능을 확정하였으며 금강산지구가 세계생물권보호구등록기준에 충분히 도달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해내게 되였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인간 및 생물권계획 국제조정리사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이곳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금강산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지속적인 개발가능성, 사회문화적가치를 인정하고 금강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금강산지구가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고 한해에 몇명에게밖에 수여되지 않는 청년과학자상이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수여되자 그에 대한 반향이 참으로 대단하였다.

이번 회의는 완전히 조선판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과학자들은 긍지높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과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우리는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을뿐이라고.

본사기자 강철웅

선두마차, 그 믿음을 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해나가고 있다.

전력계통고조파려과기 연구도입

올해에 등록된 국가과학기술성과들중에는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에 전력계통고조파려과기를 도입한 성과도 있다.

이 려과기를 도입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연구소 소장 지국렬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다.

두해전 갓 운영을 시작한 어느 한 단위에서는 전력계통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현상들때문에 정상운영을 보장하는데서 상당한 애를 먹고있었다. 큰 규모로 설치된 태양빛발전계통도 리용하지 못하고있었다.

여러 과학연구단위들과 현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참가하에 현지에서 열린 긴급협의회에서는 그 원인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여있는 조명용레드등과 콤퓨터들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때문이라는것이 곧 밝혀졌다. 필요한 지점들에 고조파려과기를 설치하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수 있다는데로 의견들이 일치되였다. 원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했던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말아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하였다. 아직까지 해본적이 없는 일이였고 또 그 믿음성과 안전성을 100%로 완벽하게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후과는 그야말로 돌이킬수 없었기때문이였다.

협의회에 참가한 소장의 심정도 착잡하였다. 량심을 말아나서야 한다고 떠밀었지만 연구소가 이미 맡고있는 여러건의 긴장한 중요연구과제들과 만약의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것이다.

그때였다. 협의회를 주관하던 일군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 대상은 아무래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야 선두마차가 아닙니까!》

선두마차!

지국렬소장은 저도모르게 머리를 번쩍 들었다. 자기가 지금 연구소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선두마차로 내세워주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대표하고있다는 책임감이 뇌리를 쳤다. 당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중시하고있다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 나가는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선두마차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 하늘같은 믿음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아심만만한 배짱이 가슴속에 용솟음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가 맡아 기어이 성공시키겠습니다!》

드디여 전투가 시작되였다. 긴장한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이 흐르는 속에 조명용레드등과 콤퓨터들에서 발생하는 고조파성분별로 세밀히 분석되였다. 실장 교수 박사 김용산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노력에 의해 현재 구성되여있는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하는 고조파를 제거할수 있는 려과기의 구조가 새롭게 착상되고 그 설계정수들이 결정되였다. 려과기설치지점들도 확정되였다.

그러나 첫술에 배가 부를수 없었다. 과학자들의 설계방안에 따라 제작된 고조파려과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떨쳐나서고 현지일군들은 물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아래단위 일군인 원정근동무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부원인 량성군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지혜와 열정을 합치였다.

마침내 원인이 해명되고 고조파려과기는 성과적으로 도입되였다. 결과 종전에 비해 전력계통의 고조파함유량이 1/4이하로 줄어들고 케블이 가열되던 현상이 훨씬 적어졌다. 모든 전력설비들과 태양빛발전계통이 정상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현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던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였다.

본사기자 려명희

실리있는 전력생산방법 확립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실습공장의 과학자들이 태양빛전지를 리용한 계통병렬용역변환기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 전력공업의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력생산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태양빛전지판이나 풍력발전기를 리용한 전력생산체계를 도입하는 단위들이 날을 따라 늘어가고있다.

많은 단위들에 도입된 이 방식을 흔히 독립형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생산된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시켰다가 필요한 때에 교류전기로 변환하여 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축전지를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계통병렬형은 생산된 전기중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국가전력계통에 넣어줌으로써 전력생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실용적가치가 큰 전력생산방법이다. 세계적으로도 태양빛발전체계를 리용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면서도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쓰는데서 의의가 큰 분산형전력생산방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효률적이고 환경보호에도 적합한 전력생산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실습공장의 과학자들은 지난 시기 나라의 전력계통에 알맞는 계통병렬용역변환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왔다.

계통병렬을 실현하자면 국가전력계통과 계통병렬용역변환기사이의 계통동기화를 실현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첨단기술인것으로 하여 연구과정에 애로와 난관이 많았다. 하지만 박사 리명주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전력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의 하나로, 국가적인 전력공업발전전략으로 제시한 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이 과정에 계통병렬용역변환기제작에서 핵심부분인 첨단수준의 미끄럼조절기를 우리 식으로 설계제작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연구사업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국가전력계통에 알맞는 동기회로와 알고리듬, 어려가지 보호기능들을 비롯하여 장치제작에서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풀어나갔다. 하여 우리 나라의 전력계통에 적용할수 있는 계통병렬용역변환기를 개발함으로써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한 우리 식의 우월한 전력생산방법을 새롭게 확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계통병렬용역변환기는 제작원가가 매우 적고 장치의 효률이 높으며 계통전압과 주파수범위가 넓다. 또한 태양빛발전체계를 구축한 단위들은 물론 가정들에도 도입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크다.

새로운 전력생산방법을 도입한 많은 단위들에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국가전력계통에 넣어주어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면서도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지금 이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를 여러 단위들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현

도시경영성 평양화초연구소에서

관상적가치가 높은 《사철국화2》호

문명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희열을 더해줄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인 《사철국화2》호가 새로 육종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에도 백화만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온 나라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화초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육종한 이 꽃은 진디물에 대한 견딜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찍음꽃이나 화단화초로서의 품질과 관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는 우수한 품종이다.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색과 다양한 꽃모양을 가진 국화는 사람들속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는 주요화초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화는 가을에 피는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철국화는 무난방태양열박막온실을 리용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목적하는 시기에 꽃을 피울수 있는 우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 육종된 사철국화는 병해충견딜성이 약하기때문에 살충제를 많이 써야 하고 또 꽃이 피여나서도 진디물피해를 받아 인차 관상적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결함이 있었다.

연구사 리정남동무를 비롯한 생물공학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병해충에 견딜성이 강한 새 품종의 화초를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10여년동안이나 벌려왔다.

연구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들은 생의 마지막시기 현대적인 화초연구기지로 전변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시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재배육종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그처럼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

연구사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값비싼 시약을 리용하지 않고도 진디물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국화에 형질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식물발현운반체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조하였으며 전이공정도 새롭게 확립하였다.

하여 찍음꽃이나 화단화초로서의 품질과 관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는 《사철국화2》호를 훌륭히 육종하여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꽃을 더 활짝 피울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본사기자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 진행

우리 나라 마술협회의 주최로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가 7일과 14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진행되였다.

당의 은정속에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로는 평양시안의 승마애호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왔다.

장애물뛰여넘기경기와 승마유희경기, 애호가경마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경기에는 협회회원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장애물뛰여넘기경기에서 선수들은 능숙한 말조종기술과 대담하고 신속정확한 결심재력으로 빠른 시간내에 장애물들을 재치있게 넘으며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높은 마술솜씨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승마의 첫걸음을 뗀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유희경기에 참가하여 좋은 추로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내딛리는 씩씩한 모습은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애호가경마가 시작되자 선수들이 쏜살같이 주로를 누비며 경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에서는 미림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의 경마에 대한 추첨도 진행되였다.

시상식에서는 종목별순위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장애물뛰여넘기경기에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 오성철, 승마유희경기에서는 중구역창전소학교 학생 전경정, 애호가경마에서는 옥류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김만철이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승마열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그들이 건장한 체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각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체육절을 뜻깊게 맞이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고있는 전체 인민이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체육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 대학, 학교들에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체육사업을 개선하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성, 룡라도지도국,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모란봉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 단위들이 축구, 롱구, 배구, 정구, 바줄당기기 등 다양한 체육경기들로 흥성이였다.

경공업부문의 중추공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더 많은 증산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과감한 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구내가 들썩하게 체육경기들을 진행하였다.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받들고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온 나날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승부를 겨룬 배구경기는 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도 대중률동체조, 건강태권도와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등 각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육절의 하루를 희열과 랑만에 넘쳐 즐겁게 보내였다.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봉현탄광, 무진대청년탄광을 비롯한 개천지구의 탄전들에서도 다양한 체육활동들이 벌어졌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당면한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등 각지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다채로운 경기들로 체육절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장자강인민유원지에서 진행된 강계시안의 고급중학교부문 남, 녀배구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육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진행된 체육활동들은 우리 당 체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대동강축전지공장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이

까부 웨르드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적도기니 독립 5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는 12일 죠르쥬 까를로스 존쎄까 까부 웨르드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죠르쥬 까를로스 존쎄까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리룡남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봉끌농업 및 식료, 자연환경부문 근로자동맹대표단 도착

【평양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오, 간토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봉끌농업 및 식료, 자연환경부문근로자동맹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길상봉동지가 맞이하였다.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8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0월 19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8일과 20일, 22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조국의 대지우에 새겨가는 값높은 삶의 자욱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전투원들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한생을 값있게 살기를 원한다. 하다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값높은 삶의 자욱을 수놓아가고있는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전투원들의 투쟁에서 찾아보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을 울려주신 20년전 력사의 그날로부터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은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창조와 위훈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아로새겨왔다.

강원도와 평안북도, 평안남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기창한 대자연개조의 불길이 타오른 토지정리전투장들마다에서 무쇠철마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며 애국의 고귀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온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다.

어찌 이뿐이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와 온성군의 토지복구전투에서도 이들은 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였다.

올해에도 이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본철에 진행한 토지정리전투를 기한전에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자신들이 걸는 이 길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오늘도 삶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려단돌격대원들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이 한초소에서 불도젤을 운전하는 부자운전수, 형제운전수들이 적지 않다. 또한 려단의 꽃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처녀불도젤운전수인 김성애동무도 있다.

떠나온 고향은 서로 다르고 나이와 성격도 각이하지만 이들의 가슴속에 하나로 간직되어있는것은 오직 하나 어머니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 자신들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다해갈 불같은 맹세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의 정치부장이였던 정상옥동무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남긴 말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한 전사, 제자가 천이면 필하고 만이면 필하겠소.

동지들! 토지정리전투를 부탁합니다.》

토지정리전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기에 그가 남긴 절절한 당부는 오늘도 려단의 전체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며 끊임없는 혁신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두달 남짓한 기간에 진행된 토지정리전투 하나만 놓고서도 이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이 전투에서 제일 난문제로 제기된것은 수렁논들에 대한 토지정리였다.

수렁논에 깊숙이 빠진 불도젤을 끌어내기를 그 몇번, 거기에다가 감탕이 휘말려들어간 불도젤들의 고장으로 하여 돌격대원들은 여간만 애를 먹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맡겨진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물러설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농장원들과 힘을 합쳐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이른새벽부터 자정이 훨씬 넘도록 토지정리전투를 진행하는 불같은 모습은 그대로 결전장에 나선 용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을방졸방하던 쾌기논들이 바둑판같은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였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늙은이들은 연방 감탄을 터뜨리며 희한하게 정리된 포전에서 농사를 지어보고싶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려단에서 해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무속품전시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뜻대로 살며 일하려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뜨거운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올해에도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많은 예비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함으로써 토지정리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는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기수, 조직적수완과 투신력을 지닌 일군이 있기마련이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우리 려단장동지》라고 정답게 부르는 로력영웅인 강봉철동무가 바로 그러한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다. 《요구성이 높은 지휘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일군》, 《일욕심이 많은 려단장》…

려단의 한 지휘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려단의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일본새,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과 집단의 화목은 려단장동지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강봉철동무에게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주 꺼내보군 하는 보물이 인 수첩이 있다.

거기에는 불도젤운전수들의 이름과 려단의 하루실적량 그리고 매 불도젤들의 가동상태와 필요한 부속품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수십리 지어 때여리구간의 넓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토지정리전투를 제정된 기일안에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면 우선 불도젤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강봉철동무는 매일 전투현장을 돌아보면서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즉시 대책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그가 뜻밖에 멎어선 불도젤들의 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해 걸고걸은 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던 그 나날에도 강봉철동무는 수백리길을 오고가며 전투원들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한편 한대의 불도젤이라도 멎어설세라 마음쓰며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지력갱생의 고귀한 창조물인 《풍년》호불도젤들은 풍요한 래일을 가꾸어가는 보배들이였다.

그 보배들을 다루는 돌격대원들을 위해 그가 기울인 정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돌격대의 한 성원이 가정사정으로 애로를 느낄 때 수백리 밤길을 달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신병이 도진 불도젤운전수를 위해 가정에서 마련한 귀중한 약재를 안겨주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던 강봉철동무였다.

려단의 돌격대원들속에서 전해지고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강봉철동무에게 많은 돌격대원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있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식들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야 없지 않습니까.》라고 웃으며 대답하였다.

사업에서는 엄격하면서도 생활에서는 더없이 다정한 지휘관, 이것이 돌격대원들의 눈에 비낀 려단장의 모습이다.

이런 지휘관이 있어 려단은 더욱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다.

* *

우리는 여기에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전투원들의 감동깊은 투쟁이야기를 다 적지 못한다.

하지만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들의 위훈은 토지정리전투장에서 펄펄 휘날리는 황해북도려단의 붉은 기발과 함께 조국의 대지에 뚜렷이 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새 도로포장공사 결속

평 안 남 도 에 서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성청년경기장에서부터 두무2동사이의 도로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이 일대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입니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도소재지의 도로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로반공사를 다그쳐 끝낸데 이어 포장공사를 최단기간에 완공하도록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공사현장에 나가 세멘트와 골재보장을 앞세우는 한편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도록 떠밀어주었다.

지휘부일군들은 도로포장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설비들을 증설하고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는 준비를 원만히 갖추도록 조직사업을 적극 따라세우면서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였다. 또한 수송이자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설비와 화물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짠지게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평성시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포장공사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시의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시에서는 방송선전차를 통해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제때에 알려주는것과 함께 다양한 경제선동활동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양지동의 주민들과 시도로보수관리대에서 동원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투쟁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힘찬 돌격전을 벌리였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 안고 분발해나선 그들은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며 혼합물보장과 콩크리트다짐작업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였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그들은 하루에 120m이상의 구간을 포장하는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역전동의 주민들과 시도로시설관리소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드높이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선행작업에 힘을 넣었다. 짧은 기간에 도로의 면모를 일신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뚫으며 떨쳐나선 그들은 흔석과 세멘트보장을 앞세우면서 하루평균 100㎡의 혼합물을 이겨 도로를 포장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한편 다른 구간을 맡은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도로포장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들은 한m의 도로를 포장하여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였다. 특히 자갈세척을 앞세워 혼합물의 질을 원만히 보장하였을뿐아니라 다음 교대작업준비도 빈틈없이 하였다.

한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포장공사성과가 오르는데 맞게 그주변 잔디심기를 따라세웠다.

도급기관 일군들과 평성시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도로포장공사와 잔디심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도로포장공사에는 골재보장을 위해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댄 평성골재생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도 깃들어있다.

지휘부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주변잔디심기를 끝낸데 이어 평성천에 대한 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이 일대를 일신시키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제품의 질개선에서 틀어쥔 고리

장 진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최근 장진군에서 지방공업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소비품들의 가지수가 더 늘어났을뿐아니라 질도 현저히 개선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곳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기 지방에 있는 원료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벌려나간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들에서 력사적인 창성려씨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장진군당위원장으로 임명된 리영상동무는 군에 있는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았다.

실태를 하나하나 료해하던 그는 생각이 많았다. 일부 공장들에서 질보장에는 관계없이 량적계획수행에만 치중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다보니 제품들은 일정하게 생산되였다고는 하지만 인민들의 수요가 높지 못하였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였다.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충족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당이 바라는대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소비품을 기어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자.

이렇게 결심을 굳힌 그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일군들모두가 떨쳐나섰다.

그들은 해당 부문 일군협의회도 진행하고 현장에 나가 대중의 심장속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도 힘있게 벌렸다.

또한 오랜 기능공들을 만나 설비현대화와 지방의 원료원천을 동원하는 사업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군안의 공장 어디서나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결과 질적요구가 보장되지 못한 대용품을 써서 제품의 질을 떨구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하나하나 극복되여나갔고 일부 일군들의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도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책임일군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되자면 아직도 거리가 멀었던것이다.

군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적문제를 놓고 또다시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그때 책임일군은 책상우에 놓여있던 일용품공장제품인 《백일홍》크레용과 수입산크레용을 내보이며 일군들모두가 대비해보고 평가를 내리게 했다.

사람들의 견해는 각이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이깔나무송진냄새가 풀씬 풍겨오는 자기 고장의 크레용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들을 바라보며 군당위원장은 왜 수입산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포장이 수입산보다 못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왜 더 애착이 가는가, 바로 이것이 다름아닌 우리의것이기때문이다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그날에 열린 협의회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군들 누구나 새로운 관점, 달라진 일본새로 일감을 찾아쥐고 뛰고 또 뛰였다.

그리하여 군안의 어느 공장에서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포장도 그에 못지 않게 잘하기 위한 된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식료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과 원료에 의거하여 사탕가루를 생산하였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종이공장에서는 학습장과 위생종이, 관종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용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누는 수요자가 날을 따라 늘어났다. 고대산산나물가공공장에서 생산한 돌배단물, 들쭉차, 곰취절임을 비롯한 산과일, 산나물들은 군은 물론 도에까지 소문을 냈다.

가구생산협동조합, 피복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상점대대들에 들어찼고 상업관리소의 이동봉사대대들의 새벽종소리가 산촌의 향기를 짙게 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되여 날을 따라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질이 높아지고있는 군의 현실은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다면 어디서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정성

평 안 북 도 소 아 병 원 의 료 일 군 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입니다.》

지난 3월 평안북도소아병원으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화상을 당한 3살 난 어린이가 실려들어왔다.

전신 35%의 3도화상에 폐수종이 오기 시작한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지 오랬고 생명지표들은 시시각각으로 위험게 선으로 치닫고있었다.

즉시적인 구급대책이 세워지고 긴장한 치료전투의 한초한초가 흘러가던 이때 최성철원장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의 눈앞에 비껴든것은 어린이의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의료일군들을 굳게 믿고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어린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환자를 살려내는것은 단순한 의학적인 문제이기 전에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전투였다.

병원일군인 최영실동무의 목소리가 의료일군들의 심장에 불을 달며 절절히 울려왔다.

《들우에도 꽃을 피울 정성이면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으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환자의 소생만이 아니라 앞날까지도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병원적인 판심속에 환자의 첫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고 생명을 위협하던 병증세는 점차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환자는 그때부터 60여일이라는 입원치료의 나날을 거쳐 건강을 회복하고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다. …

병원의 한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앞에 수십통이나 되는 편지들을 내놓는것이였다.

그 수많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조국보위초소에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심심산골의 농촌마을들에서 보내온 그 감사편지들은 하나하나가 진정 사랑과 정성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신의주시에서 살고있는 돌을갓 넘은 평범한 교원의 아들의 소생을 위해 자기 피를 서슴없이 바친 기술부원장 리복순동무, 괴현군의 한 영예군인의 아들이 의식을 잃고 들어왔을 때 50여일동안의 소생전투를 벌려 끝끝내 소생시킨 순환기내과과장 장혜경동무와 의사 리정림동무…

도안의 세쌍둥이들과 육아원, 애육원, 학원의 원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로 생산한 효능높은 갖가지 고려약들을 한가지라도 더 보내주기 위해 아금타금 애쓰고있는 약국장 김옥경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의 미담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지금으로부터 여러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병원의 일군들은 약속이나 한듯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이날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더 잘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진 이들은 도안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의 원아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고려약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원아들에게 공급할 고려약들을 더 생산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의약품생산공정들을 더 잘 꾸리고 부족되는 원료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이악하게 투쟁하여 의약품생산량을 지난 시기에 비해 3배로 장성시켰고 해마다 년간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다.

이렇게 만든 고려약들을 가지고 원아들을 찾아가는 이들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긍지로 부풀어올랐던가.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 성스럽고 보람찬 헌신의 길에 새겨가는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있어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인 이 땅우에 아이들의 랑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김성민

3차원인체측정으로 인민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옷설계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지하막장과 숨결을 잇고

2.8직동청년탄광의 업무부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언제나 수천척지하막장과 숨결을 잇고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얼마전 업무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8갱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은 사갱벨트콘베아를 원상대로 수리정비하고 운전실들을 손색없이 꾸려줌으로써 운전공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설비가동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탄광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업무부의 일군들은 갱막장에서 벨트콘베아상태와 운전실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짜고들었다.

업무부아래 운수중대, 저목장중대의 로동자들은 자기 일터를 꾸리는 심정으로 너도나도 떨쳐나 많은 세멘트와 모래를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고 주변의 감탕을 퍼내면서 운전실꾸리기를 불이 번쩍 나게 내밀었다.

이들은 누구나 주인된 심정으로 비닐페자며 분양고운 벽지들을 마련하여 운전실들의 내부를 환하게 꾸려주는 한편 공구함과 여러가지 작업공구들, 책걸상을 비롯한 비품들도 새것으로 갖추어주었다.

업무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갱의 기능공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벨트콘베아를 원상대로 수리정비하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벨트콘베아수리정비에 필요한 골재들을 원만히 보장하였을뿐아니라 단권변압기도 설치하여 기대장의 환경도 일신시켰다.

업무부의 일군들은 자주 막장에 찾아가 로동자들과 일도 함께 하고 걸린 문제도 제때에 풀어주면서 비흡한 점이 있을세라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8갱의 사갱벨트콘베아와 운전실들은 그 모습을 일신하였다.

오늘도 업무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하막장의 탄부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나라의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가는데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자체로 만든 이동식벼종합탈곡기가 은을 낸다

원 산 시 안 의 농 촌 들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원산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드높이 벼가을과 낟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징적인것은 시자체의 힘으로 만든 수십대의 능률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을 리용하여 낟알털기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는것이다.

이 성과속에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시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

가을걷이를 앞두고 시안의 농장실태를 료해하던 시당책임일군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한것은 농장들의 기계화수준이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했던것이다. 특히 가을걷이시기가 다가온 조건에서 농장들의 낟알털기능력이 낮은것이 문제였다.

지난 시기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을 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낟알털기기일이 오래 걸리여 결국 낟알허실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

그러면 방도는 무엇인가.

두말할것없이 능률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많이 만들어 낟알털기능력을 높이는것이였다.

막상 이 일을 시작하자고보니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시의 실정에서 그 많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짧은 기간에 자체로 만들수 있겠는가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때 시당책임일군은 힘주어 말했다.

지금 당에서는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물론 자재를 비롯하여 부족되는것이 많은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보다도 어떤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우리 일군들의 사상적각오가 부족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강원도사람들을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시지 않았는가. 그 사랑, 그 믿음이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그의 말은 일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들은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립장에서 탈곡기생산에 달라붙었다.

우선 농장들에서 벼재배면적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20정보당 한대의 탈곡기가 차례지도록 생산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또한 탈곡기설계를 최대의 능률을 낼수 있게 혁신적인 안목에서 하도록 하였다.

시농기구공장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탈곡기제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시책임일군들은 수시로 전투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일도 같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주면서 생산자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능률높은 탈곡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방도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탈곡기제작에 여러가지 혁신적인 안들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탈곡동의 길이를 종전의것보다 작게 하여 자재를 절약하고 탈곡기의 무게를 줄인것, 탈곡삼재료로 철관이 아니라 쇠줄을 리용한것, 정선장치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정선률을 현저히 높인것 등은 기술자, 로동자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였다.

이처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동식벼종합탈곡기생산은 빠른 시일내에 결속되게 되였다.

이동식벼종합탈곡기 제작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뜻을 뼈에 새기고 자력갱생,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해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지금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의 만가동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낟알털기실적이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친혈육의 정 차넘칩니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저는 로당익장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해마다 전승절과 조선인민군창건일을 비롯한 뜻깊은 날들이 오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축하하여주고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진정을 다해 돌보아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서성구역 장경2동 37인민반에서 사는 강선철, 리확실동무들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맏아들과 맏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평범한 전쟁로병인 저와 우리 가정과 인연을 맺고 친혈육의 뜨거운 정을 부어주고있습니다.

이 가정의 맏손자인 서성구역 장경소학교의 강지현학생은 꼭 친손자같습니다.

이 학생은 이번 전승절에도 향기그윽한 꽃다발과 함께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 축하해주었습니다.

제 생일까지도 잊지 않고 찾아와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이지 우리 전쟁로병들이 이런 훌륭한 새 세대들의 존경속에 생을 빛내일수 있게 하여준 고마운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정을 누를길이 없습니다.

전쟁로병들을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은인들로 높이 내세워주는 당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는 사회적기풍이 온 나라에 공기처럼 차넘치고있는것입니다.

비록 저는 년로한 몸이지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1950년대 전화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갈 결심입니다.

서성구역 장경2동
76인민반 리의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그들은 지난 세기는 자본주의가 《승리》한 세기였다는 나발을 불어대며 사회주의에 대한 법의벌 악담을 다 퍼부어대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은 저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물질적번영》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인민적이며 부패한 사회, 쇠퇴몰락하는 자본주의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비난은 지구상에 사회주의제도가 출현한 첫날부터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벌려온 반사회주의악선전이다.

원래부터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저들의 반인민적인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간판을 뻐젓이 내걸고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는 로골적인 독압정치를 실시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반동적본질은 바로 통치자들에게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며 그들을 억압할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데 있다. 그 통치자들은 다름아닌 독점자본가들과 그 사환군들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를 비난하는것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궤변이다.

사회생활방식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다.

사회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을 억제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 자본주의제도이다.

근로하는 인민이 자본의 노예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이 보장될수 없다.

자본주의는 결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사는 사회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사회가 안고있는 악성종양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아무리 많이 생산되여도 물질생활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부유한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보람도 없는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막대한 재부를 마구 탕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빈궁선이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며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극소수의 특권계층이 사회적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항시적으로 일자리걱정, 치료받을 걱정, 집걱정, 먹고 살 걱정,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병이 나도 돈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고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는 반동적인 사회이다.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자주의식이 마비되고 사상문화적으로 부패타락하고있다. 발전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을 놓고보더라도 문맹자와 정신적불구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리상과 포부도 없이 안일만을 추구하는 저속한 인간으로 변질되여가고있다.

자본가들은 저들의 리윤추구를 위해 이것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그들은 인류의 파멸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변태적인 생활수단들을 만들어내고있다. 무질서한 랑비와 부화방탕이 생활풍조로 되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타락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사회적풍조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종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다. 지어 이웃들간에 칼부림이 벌어지고 부자간, 형제간에도 폭력행위들이 감행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말그대로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이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까지 자본주의사회가 고질적인 불치의 병을 안고있다고 개탄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가 사회발전을 억제하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준다고 떠들어대는것은 흑백을 전도해보려는 넉두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창조적생활이 약동하는 전진하고 생기발랄한 사회, 사회발전을 추동하며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이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전전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사상문화생활,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누릴수 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잘살고있다.

사회주의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건강한 몸으로 배우고 다같이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마음껏 향유하고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긍지높이 살아가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도 실업자도 없고 알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도 없으며 인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다. 인민들이 창조한 재부가 전적으로 인민들자신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들의 창조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들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인민대중자신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누리고있으며 국가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정치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생활적요구로 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국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바없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력사를 통하여 확증되였다.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곡하며 사회주의를 헐뜯는것은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세워보려는자들의 어리석은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력사의 이 법칙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여도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인류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리 학 남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제18차회의 진행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제18차회의가 5일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마라까이시에서 진행되였다.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를 비롯한 연구소 집행위원회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를 리사회로 개칭하였다.

또한 리사회성원들의 임무가 새로 규정되였으며 그들의 역할문제가 토의되였다.

자주적인 하나의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청년운동 결성

자주적인 하나의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청년운동이 5일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마라까이시에서 결성되였다.

청년운동 위원장으로 안드레아 싸라떼 푸엔테스가, 부위원장으로 옴미스 쌀라싸르 빠라가, 서기장으로 엑또르 끄루스 라모스가 선출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조로외교 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토론회 마련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3일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의 주최로 모스크바법률대학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로씨야고통련 위원장 김칠성을 비롯한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평의회 부의장 고분 바쿨라노브와 학계, 출판보도계 등 각계 인사들, 로조친선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모스크바시로병협회,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대학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토론회에 초대되였다.

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로씨야고통련에서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제작한 사진편집물을 보았다.

편집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전 쏘련과 로씨야를 방문하시는 력사적장면을 수록한 사진문헌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여주시는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였다.

또한 평양과 모스크바에 있는 두 나라 대사관들과 조로관계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편집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의 축하말언이 있었다.

이어 로씨야고통련 위원장, 로씨야련방평의회 부의장 고분, 모스크바법률대학 부총장,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친선관계는 오늘 두 나라 수뇌분들의 관심속에 더욱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 로씨야고통련 성원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파멸을 앞당기는 대결당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률은 력대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은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명정한 평가를 내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버림과 배척을 받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반역당패거리들이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대참패이후 그 무슨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면서 큰 변화라도 가져올듯이 요설을 늘어놓았지만 매국반역의 체질에서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구태의연한 대결악습에 사로잡힌 《자유한국당》것들이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을 반영한 력사적인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무턱대고 헐뜯으며 민심에 역행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파국상태에 처해있던 북남관계는 3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극적인 개선을 이룩하고 화해와 평화의 궤도를 따라 계속 발전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대화와 긴장완화에로 확고히 지향되고있지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여전히 대세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자유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어떠 정계인사들은 《자유한국당》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계속 반대하면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할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는 아랑곳없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한사코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이 반역당의 대결미치광이들은 지어 《9월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부속합의서내용까지 걸고들며 《안보》타령을 요란스럽게 늘어놓았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일이라면 덮어놓고 시비질하며 대결광기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못된 악습은 어디 갈데 없다.

그러니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밖에 더 받을것이 있는가.

민심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있다.

본사기자 김 현 남

남조선 각계 인사들 사법적폐청산을 가로막는 법원에 항의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각계층 인사 310여명이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적폐청산을 가로막는 법원당국의 처사에 항의하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의 사법롱락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사법롱락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은 이전 《정권》때의 사법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하였다고 선언문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지 여러달이 지났지만 감옥으로 가야 할 량승태가 아직도 수사를 받지 않고있으며 사법롱락을 저지른 전, 현직법관들에 대한 수색과 구속령장들이 거의 대부분 기각되였다고 선언문은 비난하였다.

선언문은 법죄의 주범인 량승태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령장도 련거퍼 기각되였으니 실로 기가막힐 지경이라고 개탄하였다.

사법당국이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며 사법롱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선언문은 요구하였다.

선언문은 《국회》도 사법롱락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며 사건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사법당국이 사법적폐를 비호하고있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초불을 들고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제발전에 힘을 넣는 몽골

몽골에서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국가이다. 대부분지역은 해발높이 1 000m이상의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세계적으로 대륙성기후의 특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자연지리적특성과 기후적특성은 몽골이 오랜 기간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고있다.

몽골의 축산업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인구 1인당 집짐승마리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축산을 많이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고기와 젖을 가공하는 식료공업, 가죽가공공업, 모방직공업 등 축산물가공공업은 나날이 발전하고있다.

광업도 발전하고있다. 몽골에서는 광업이 축산업을 통가하여 제1기둥산업으로 되였다.

이 나라에는 300개이상의 탄광이 있으며 석탄매장량은 약 1 733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토대하여 해마다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 수출하고있다.

관광업 역시 발전하고있다.

올해를 관광의 해로 선포한 몽골정부는 자연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규정들을 새로 제정하고 관광업과 봉사업분야들사이에 협력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 올해 1.4분기에만도 외국인관광객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1% 증가하였다고 한다.

몽골은 산림보호에 큰 힘을 넣고있다.

산림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재부이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산림보호와 함께 산림조성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 이 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5월과 10월의 두번째주 토요일을 전국적인 나무심기의 날로 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나무심기에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나무를 많이 심은 주민들에 한해서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취하고있다.

몽골은 국제기구와의 협조밑에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2023년까지 지열을 비롯한 각종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4만 1 000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8만 5 000명이상의 주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되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몽골은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몽골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독립국가협동체 국방상리사회 회의 진행

독립국가협동체 국방상리사회 회의가 12일 우즈베끼스딴의 따슈켄뜨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성원국 국방상들은 방위 및 안전분야에서 나서는 협조문제들과 중앙아시아지역정세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테로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안들이 작성되고 공동군사체계들의 발전방향이 확정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파시즘을 격멸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5돐을 공동으로 경축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꾸바의 사회단체들 미국의 반꾸바봉쇄철회를 요구

꾸바의 시민사회단체대표 100여명이 12일 한 회의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끝장낼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근 60년간에 걸치는 미국의 반꾸바봉쇄로 현재까지 나라의 경제사회발전에서 1 330여억US$어치의 손실을 입은데 대해 폭로하였다.

꾸바녀성련맹의 한 관리는 계속되는 봉쇄의 기본목적이 꾸바혁명을 말살하고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꾸바인들의 인권에 대한 극악한 침해행위이며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정부수반리사회 회의 진행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정부수반리사회 회의가 12일 따쉬끼스딴의 두샨베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기구성원국 정부수반들과 대표들, 옵써버자격을 가진 벨라루씨와 이란, 몽골, 아프가니스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상해협조기구의 법위안에서 무역경제 및 인도주의적협력강화문제, 다방면적인 협조계획의 실현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끝에 공동콤퓨니케가 조인되였으며 경제, 무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와 관련한 결의와 협조문건들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부흐름-2》계획을 둘러싼 복잡한 모순관계

씨비리의 천연가스를 발뜨해의 해저를 통해 도이췰란드로 직접 수송하는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의 능력을 확장하는것이 현재 로씨야가 추진하려 하고있는 《북부흐름-2》계획이다. 로씨야와 도이췰란드는 2015년에 이 계획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북부흐름-2》계획의 추진은 난항에 부딪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공보서기는 《북부흐름-2》계획에 참가하는 나라들에 한해 제재를 실시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비난하였다. 그는 상업적인 국제계획을 막아나서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모든 무역규정과 규범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는데 대해 까밝혔다.

앞서 로씨야의 연료동력종합체 수출계획투자가들을 겨냥하여 제재를 실시할데 대한 법안이 미국회에 제출되였다. 한 국회 상원의원은 법안의 목적이 에네르기자원을 악용하여 나토성원국들에 정치적강요를 들이대려는 로씨야의 시도를 파탄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유럽에네르기시장에서 로씨야를 밀어내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를 들이밀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의 첫 가지선은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그를 통한 년간 가스수송량은 550억㎥에 달한다. 《북부흐름-2》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가스수송관 2개를 새로 부설함으로써 도이췰란드에 대한 로씨야산 천연가스공급량을 배로 늘이게 되여있다. 도이췰란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이 계획이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공급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은 《북부흐름-2》계획은 유럽에 대한 에네르기공급을 독점함으로써 지역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나아가서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로씨아의 대외정책의 산물이다, 유럽나라들이 에네르기수요의 많은 몫을 로씨아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올가미에 목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위로 될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유럽나라들이 로씨아산 천연가스로부터 미국산 액화가스로 수입원천을 전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미국이 취한 이러저러한 대로씨아제재들은 간접적으로 《북부흐름-2》계획실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유럽동맹의 일부 성원국들도 《북부흐름-2》계획을 비난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북부흐름-2》계획을 《상업》의 외피를 씌운 로씨아의 불순한 정치적계획으로 보고있다. 로씨아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도이췰란드에 대해서도 에네르기공급원천을 다양화할데 대한 유럽동맹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유럽동맹은 일개 나라의것이 아니다고 항의하였다. 지어 로씨아가 이 계획이 실현되는 즉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수송을 중단하는것으로 이 나라에 경제적타격을 가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의존하고있던 동유럽나라들에서도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로씨아는 이러한 비난과 우려에 대해 일축하면서 《북부흐름-2》계획은 명백히 자기 나라와 유럽에 다같이 리득을 주는 순전한 상업적계획이라고 하고있다. 계획이 실현되면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공급은 중단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도 여러차례나 밝혔다. 한편 유럽에 대한 로씨아산 천연가스공급이 가격에 있어서나 수송지리에 있어서 미국산 액화가스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유럽나라들의 옳바른 선택을 호소하고있다.

최근년간 로씨아는 세계에네르기시장에서 보다 앞선 지위를 차지할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이로부터 에네르기수출통로들을 다각화하는 등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지만 관측자들은 여러해가 지나서야 겨우 시작을 뗀 《북부흐름-2》계획을 놓고 그 실현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것이라고 보고있다. 유럽방면에 대한 가스수출계획의 일환으로 로씨아가 추진하던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이 2014년말에 끝내 중지된적이 있다.

현재 로씨아와의 에네르기협조를 지향하는 유럽나라들의 립장은 이중성을 띠고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이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온것과 관련된다. 최근시기 미국의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 등의 문제로 유미사이에 마찰이 격화되고있지만 그렇다고 유럽은 로씨아와의 적극적인 협조에로 방향전환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외신들은 여러 나라들사이의 심화되는 모순으로 하여 《북부흐름-2》계획의 실현전망은 모연하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지진

최근에 일어난 지진과 해일이 인도네시아의 중부지역을 뒤흔들었다.

지난 9월 28일 이 나라의 중부쑬라웨씨주에서 리히터척도로 7.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강진후 여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일어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400차례가 훨씬 넘는 여진이 있었다고 한다.

지진과 그에 뒤따라 들이닥친 해일로 이 나라는 숱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물적손실을 입었다.

이 나라의 재해관리기구가 전한데 의하면 7일현재 사망자는 1 940여명, 부상자는 약 2 550명으로 늘어났다. 행방불명자는 835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파괴되고 교통이 마비되였으며 전력공급과 통신이 중단되였다.

살림집의 파괴로 숱한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교통과 통신의 마비 역시 구조대의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다.

유엔은 이번에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19만여명의 인도네시아주민들이 긴급인도주의원조를 필요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식량과 깨끗한 물, 림시거처지라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지진피해를 자주 입는 나라이다. 올해에만도 리히터척도로 6이 넘는 지진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지난 7월 29일 이 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롬보끄섬에서 리히터척도로 6.4의 지진이 일어난데 이어 8월 5일 리히터척도로 7의 지진이 일어나 수백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8월 18일 수도 자까르따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때에 참가자들은 사망자들을 추모하여 모두 1분간 묵상하였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될 때에 롬보끄섬과 그 주변에서는 구제작업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그로부터 두달정도 지나 중부쑬라웨씨주가 지진피해를 당하여 페허로 되였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지진대에 놓여있다. 그로 하여 지각운동이 활발하고 지진 및 화산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의 쑤마트라섬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가장 재난적인것이였다. 그 지진의 크기는 리히터척도로 9.3으로서 최대급모였다고 한다.

당시 지진에 이어 강한 해일이 발생하였는데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디아, 방글라데슈, 타이, 딴마, 말디브 등 나라들에서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2005년 2월 2일에 집계되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파국적인 지진과 해일로 인한 사망자수가 13개 나라에서 총 3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쑤마트라섬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파괴력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9 500개와 맞먹는것으로 평가하였다.

영국과학잡지 《네이처 지오싸이언스》에 발표된 론문에 의하면 대지진의 발생확률은 만조응력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 높아진다. 쑤마트라섬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최대규모의 지진들은 대부분 달과 태양사이의 끌힘이 대단히 커지는 시기에 발생하였다.

지금 인도네시아정부는 지진 및 해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진 및 해일피해를 당한 인도네시아에 위문을 표시하고 구조대를 파견하고있으며 구제물자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원조를 주고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데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림 원

세계손씻기의 날

10월 15일은 세계손씻기의 날이다.

이날이 제정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손씻기라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위생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도록 하여 전염병에 걸리거나 그것이 전파되는것을 막자는데 있다.

손씻기의 날이 특별히 제정된 그자체만 놓고보더라도 손을 씻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대부분의 세균은 손을 통하여 감염된다. 3시간정도만 손을 씻지 않아도 손에 굉장한 량의 세균이 서식하게 된다고 한다. 손을 자주 씻지 않는다면 이 균들은 그대로 장티브스, 콜레라, 설사, 폐염 등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다. 요즘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있는 에볼라비루스도 손을 통해 감염될수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손씻기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해마다 세계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행사들을 진행하여 세계손씻기의 날이 가지는 의의와 손을 깨끗이 씻는것이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데 대하여 적극 선전하고있다. 유치원과 학교, 가정들에서 비누로 손을 씻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고있다.

손을 통한 병균의 감염을 막자면 정확한 손씻기방법을 알고 씻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물로만 손을 씻어도 눈에 보이는 먼지나 때가 없어져서 깨끗해진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비누를 쓰지 않으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없다. 비누거품이 충분히 일게 하고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사이 특히 손톱밑을 구체적으로 비벼야 한다. 다음 흐르는 물에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거나 자연건조시켜야 한다.

콤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거나 기타 다른 물건들을 다룬 후 그리고 부엌일을 한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콤퓨터를 사용한 후의 손이 제일 더럽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손을 잘 씻어주어야 한다.

전세계 5살미만 어린이들을 사망에로 몰아가는 가장 큰 요인들중 두가지가 설사와 호흡기질병인데 이것은 대부분 손을 통해 옮겨진다. 어린이들의 손씻기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날씨가 추워지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은 감기에 류의해야 한다. 이것을 예방하자고 해도 손씻기를 잘해야 한다.

누구나 다 건강을 위하여, 생명보호를 위하여 손씻기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굳어지게 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손 소 연

ㄱ-181163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8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